

# 經濟的 要因에 의한 人口移動理論에 관한 一考察

유 일 선\*

## 〈目 次〉

- |                                      |                           |
|--------------------------------------|---------------------------|
| 1. 序 論                               | (1) Stiglitz 有效賃金模型       |
| 2. 新古典派 模型                           | (2) Harris-Sabot 求職模型     |
| 3. Lewis의 二重經濟模型                     | (3) Cole-Sanders 都市生存部門模型 |
| 4. 人的資本理論                            | (4) Mazumda의 分斷勞動市場模型     |
| 5. Harris-Todaro 期待賃金模型              | (5) Lee Bun-Sung 模型       |
| 6. Harris & Todaro 모형에 대한<br>비판 및 수정 | 7. 既存研究結果의 評價<br>참고문헌     |

## 1. 序 論

큰 범주로서 인구이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일어나고 사회구조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회학적 연구과제가 되어 왔으며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정치현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치학적 연구대상도 되어왔다. 또한 이주행위는 개인의 가치목표에 따른 동기에 의해서 유발되고 이주지에서의 적응성패는 人性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심리학적인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리고 인구이동은 경제적 기회의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난다는 점과 중요한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이동을 초래하여 경제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적 연구대상도 되어왔다. 이와같이 인구이동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개인의 심리등 제반 현상과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 본 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국제경제)

한 학문의 연구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경제적 기회에 대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경제발전과정에서 노동력재배분 문제로서 인구이동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오고 있다. 특히 한국은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성장과정에서 급격한 농촌-도시간 노동력이동을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가 농업중심에서 제조업, 서비스산업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1960년까지 총인구에 대한 도시인구비율이 28.3%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에는 74.4%에 이르러 급격한 도시화현상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인구이동현상은 경제적 요인을 배제하고는 설명될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기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및 개인의 심리를 모두 포괄하는 인구이동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노동력 재배분의 일환으로 지역간 노동력이동을 다룬 이론을 정리하여 앞으로 지역간 노동력이동에 관한 이론개발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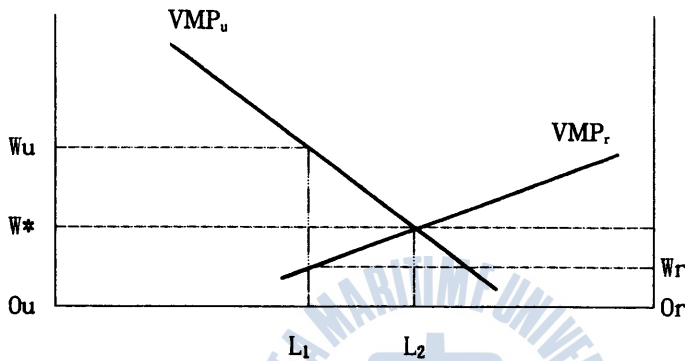
## 2. 新古典派 模型(neo-classical economics model)

도시공업부문과 농촌농업부문으로 이루어진 한 국민경제에서 자본은 양산업에 고정되어 있고 노동은 동질적이고 노동만 산업간 이동가능하다고 하자.<sup>1)</sup> 노동은 각 산업에 완전고용되고 노동의 한계생산력은 체감한다.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의해 결정되고 노동력은 한계생산력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전제하자.<sup>2)</sup> <그림2-1>은 이 모형의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의 가로축은 노동의 양을 나타내고 왼쪽의 원점  $O_u$ 는 도시부문의 원점이고 오른쪽의 원점  $O_r$ 은 농촌부문의 원점인데 두 점  $O_u$ 와  $O_r$ 사이의 거리는 전체 노동공급량을 나타내고 있다. 원점  $O_u$ 로부터 오른쪽으로 도시인구 그리고 원점  $O_r$ 로부터의 거리로서 농촌인구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전체인구가 이 두 부문간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실을 한다. 두 곡선은  $VMP_u$  및  $VMP_r$ 은 각각 도시부문과 농촌부문의 노동수요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O_uL_1$ 의 노동력이 임금  $W_u$ 를 받으면서 도시공업부문에서 고용되어 있고 나머지  $L_1O_r$ 의 노동력이 임금  $W_r$ 를 받으면서 농업부문에 고용되어 있다고 하자. 이와 같이 도시-농촌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면 농촌의 노동력은 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도시부문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도시공업부문은 노동력이 증가하여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체감된다. 이에 따라 도시공업부문은 임금이 하락하고 농업부문의 임금은 상승하여 결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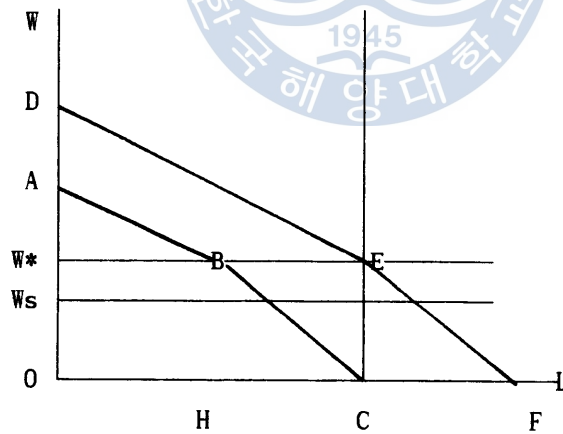
1) R.W.Jones(1971)의 specific trade model를 상정하고 있다.

2) 이것은 전통적인 신고전파 가정에 해당된다.

양부문의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균형은 도달하게 되고 노동력이동은 정지하게 된다.  $L_1, L_2$ 만큼의 노동력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전통이론에 입각하면 이와 같은 노동력이동현상은 실질소득의 격차에 의해서, 임금의 신축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노동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된다.



<그림 2-1> 지역간 노동력이동의 균형



<그림 3-1> Lewis의 자본축적모형

### 3. Lewis의 二重經濟模型(dual economy model)

Lewis는 임금이 한계생산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신고전파적인 임금결정메카니즘은 특히 개도국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도시의 제조업부문과 농촌의 농업부문은 임금이 노동시장의 왜곡등으로 서로 다른 메카니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신고전파모형에서 지적한 것처럼 임금결정이 신축적이지 못하여 한계생산력에 차이가 존재하여도 노동력이동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력이동은 또 다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먼저 한 국민경제를 전통부문인 농업과 근대화부문인 비농업부문이 병존하는 이중경제(dual economy)를 상정한다. 비농업부문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산업이고 농업부문은 가족노동에 의한 생계유지 목적으로 생산하며 많은 잠재실업을 안고 있다. 이런 세계에서 Lewis는 잠재실업에 의한 자본축적을 통해 경제발전모형을 제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적 노동력이동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잠재실업에 의하여 자본이 축적되는 경로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 농촌에서 잠재실업을 빼냄으로써 농가의 1인당평균소득이 상승하여 농업자체의 저축이 증가하는 경로이고<sup>3)</sup> 둘째, 농촌의 잠재실업이 공업부문에 고용됨으로써 공업부문의 저축을 증대시키는 경로이다.

Lewis는 두번째 경로에 주목하였다. 농업부문에 잠재실업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비농업부문에 노동공급은 무한탄력적이며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노동공급곡선을 수평선으로 나타낸다. <그림3-1>에서 곡선 AC와 DF는 다른 시점에서 비농업부문의 노동수요곡선이다. 여기서  $W_s$ 곡선은 농촌의 생존임금수준이며 이는 농가의 1인당평균소득과 일치한다. 농업이 가족노동에 의한 생계노동이기 때문에 잠재실업자도 이 정도의 평균소득수준에서 소비활동을 한다. 그러므로 농촌의 잠재실업자를 도시의 공업부문으로 끌어 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잠재실업자가 도시로 이주할 때 겪게 되는 심리적 비용(가족과 떨어져 있는 정신적 고통, 생활의 미적응에 따른 불안감 등)과 도시의 높은 생활비를 보상받아야 하므로 임금은  $W_s$ 수준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며<sup>4)</sup> 이  $W^*$ 수준이 도시의 기업가에게 적용되는 비농업부문의 노동공급곡선이 된다. 먼저 이 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곡선이 AC라 하자. OC는 이 나라의 잠재실업자 수를 나타낸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잠재실업자의 한계생산력이 0이므로 C점에서 노동이 고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잠재실업자는 사적입장에서는

3) 이와 같은 경로에 의한 개도국의 경제발전방향은 R.Nurkse(1953)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4) Lewis자신은 이 보상비를 생존임금수준의 30%로 보았다.

W\*의 임금수준에서 노동을 공급할 것이므로 실제 노동고용은 B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총산출에서 W\*AB부분은 이윤형태로 도시의 기업가에게 분배되고 OW\*BH부분은 임금으로 배분된다.<sup>5)</sup> 기업가에게 배분된 이윤이 자본으로 축적되고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게 되므로 노동수요곡선은 바깥으로 이동하게 된다. 노동수요곡선이 DF에 이르면 HC만큼 농촌에서 잠재실업이 도시의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하게 되고 농촌에서 잠재실업이 고갈된다. 계속해서 자본이 축적되고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도시비농업부문의 노동의 한계생산력이 제고되기 때문에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양의 값을 갖는 노동이 도시로 이동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경계를 전환점(turning point)라 하였다. 전환점 이후의 세계는 앞절에서 논의한 신고전파세계와 동일하게 된다.<sup>6)</sup> 결론적으로 Lewis모형은 동질적인 노동이 농업부문에서는 잠재적인 실업으로 존재하고 도시비농업부문에서는 완전고용이 달성된다는 가정하에서 자본축적률이 도시비농업부문의 고용증가율과 지역간 노동이동율이 비례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4. 人的資本理論(huamn capital theory)

이 이론은 Sjaastad(1962)가 Becker등이 주장한 인적자본의 개념을 인구이동이론에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는 이주를 인적자본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투자라고 파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구이동은 자원을 보다 비효율적인 곳에서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시키는 투자가 된다. 투자에는 비용과 수익이 따르게 되는데 Sjaastad는 이주의 비용을 화폐적인 비용과 비화폐적인 비용으로 구분하고 수익도 마찬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주의 화폐적인 비용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직접적인 이주비용과 도시에서의 높은 생활비 등이 포함되고 비화폐적인 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한 구직비용,

5) 사회적 비용과 사적비용의 차이때문에 CH만큼의 노동고용이 감소하고 BHC면적만큼의 소득감소가 일어난다. 이런 이유때문에 실제로 자본축적에 애로가 있는데 Nurkse는 농업부문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을 Lewis는 신용창조에 의한 인플레이션에 의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6) Fei J C H & G Rains(1963)1는 Nurkse가 잠재실업을 통해 농업부문 자체의 자본 축적측면을, Lewis는 공업부문의 자본축적측면에 중점을 둔 것을 통합한 자본축적모형을 발전시켰다. 이들은 잠재실업하에서 자본축적과정을 세단계로 나누고 있다.

제1단계는 잠재실업이 존재하여 농업부문에서 한계생산물이 0인 경우 : 노동공급 곡선이 수평선  
제2단계는 농업부문의 한계생산력은 0보다 크나 공업부문보다 적은 경우 : 노동 공급곡선은 우상향  
제3단계는 농업부문에서 한계생산력이 0보다 크고 공업부문보다 같거나 큰 경우

이 경우 노동력이동은 잠재실업이 공업부문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1단계와 2단계사이에 급속히 진전되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농업부문이 축소되면서 진전되기 때문에 임금상승을 동반한다. 이때 1단계와 2단계의 경계점은 Lewis의 전환점과 일치하는 개념이다.

새로운 기능을 배우는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기간의 기회비용과 가족과 친지 그리고 주변의 친숙한 환경을 떠나게 되는 심리적인 비용을 나타낸다. 이주로 인한 화폐적인 수익은 이주자의 소득흐름의 변화인데 이것은 평생에 걸쳐 측정되고 비화폐적인 수익은 새로운 환경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심리적인 이득을 나타낸다. Sjaastad에 의하면 이주자와 유출지의 평생동안의 소득차이를 할인률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이주비용을 초과하게 되면 각 개인은 이주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1) \quad \sum_{t=0}^T \frac{(B_i^t - C_i^t) - (B_j^t - C_j^t)}{(1+r)^t} - E_{ij} = PV_{ij}$$

여기서 B와 C는 각각 기대수익과 기대비용을 나타내며 E는 이주비용을 나타내고 r은 할인율을 나타낸다. 첨자 i는 유출지를 나타내며 첨자 j는 임의의 이주지를 나타내고 첨자 t는 시간을 나타내며 T는 잠재적 이주자의 계획기간을 나타낸다. 만약  $PV_{ij} > 0$ 이면 잠재적 이주자는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데  $PV_{ij} > 0$ 인 장소가 여러개이면 잠재적 이주자는  $PV_{ij}$ 가 그대가 되는 곳을 이주지로 결정된다.

이 인적자본이론에 의해 인구이동이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결과가 다수 나왔다. Bowles는 1955-1960년의 미국의 인구이동에 관한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6가지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남부지방의 인구이동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 다음 세가지는 인적자본이론과 관련된 것이다. (1) 인구이동률은 유출지와 이주지간의 장래에 걸친 기대소득의 현재가치의 차이와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 (2) 기대소득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인구이동률에 미치는 효과는 교육수준과 양의 관계이다. 이것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미래소득에 대한 정보수집량이 많아 경제적 동기에 잘 반응하기 때문이다. (3) 기대소득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인구이동률에 미치는 효과는 연령과 음의 관계이다. Bowles는 이상의 가설에 근거하여 1955-1960년간의 미국 남부로부터 북부로의 인구이동 방정식을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위의 모든 가설들이 지지된다고 하였다. Kaluzny(1975)는 미국의 개별가구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이동결정함수를 추정하였다. 이 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45세 미만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1968-69년과 1969-70년간의 타주로의 이주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자가소유 여부, 가족규모, 조사기간중 새로운 가구의 창출여부, 현거주지 거주기간, 가구소득, 출생지로부터의 이주여부, 연령, 성별, 교육수준, 그리고 이주에 의한 기대수익 등을 독립변수로 추정하였다. 함수추정에 사용된 여러 독립변수들은 개인의 인적자본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함수추정결과 전반적으로 인적자본에 의한 인구이동이론이 현실의 인구이동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ber & Chase(1971)는 인적자본이론에 의한 인구이동이론을 캐나다의 경우에 적용하여 이 이론이 역시 높은 현실설명

력을 갖는다고 결론지었다. 1956-61년간의 인구이동에 관한 1961년의 센서스자료를 이용하여 이주경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하였는데 이용된 독립변수는 수익의 차이에 대한 기대치와 거리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거리는 이주비용에 대한 대용변수로 사용된 것이다. 즉 각 지역별 회귀분석의 결과 모든 방정식이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회귀계수의 부호를 보면 모든 지역에서 수익의 차이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는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거리에 대해서는 음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 5. Harris-Todaro 期待賃金模型(expected wage model)

현재 개도국의 많은 도시에서는 다수의 실업자 및 불완전취업자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이 계속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심각한 도시문제 및 실업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농촌간의 임금격차가 뚜렷하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통이론이나 인적자본이론은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Todaro(1969)와 Harris-Todaro(1970)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둔 모형을 개발하였다. 먼저 Todaro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도시부문의 최저임금이 농촌지역임금보다 높다고 가정한다.<sup>7)</sup> 또한 농촌-도시간 노동력이동의 균형은 전통이론과 달리 도시지역의 기대임금수준(임금 X 고용확률:  $W_u^e$ )과 농촌지역의 실제임금( $W_r$ )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이제 노동력이동의 균형조건은 다음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5-1) \quad W_u^e = Wu(1-u) = W_r$$

이 된다. 여기서  $W_u$ 는 도시지역 임금이고  $u$ 는 도시지역 실업률이다. 도시전체인구( $N_u$ )에서  $Lu$ 만큼 고용되었다면 이것들과 실업율의 관계는

$$(5-2) \quad 1-u = Lu/N_u$$

이 된다. (5-1)과 (5-2)식에 의해서

7) 실제적으로 도시지역 임금이 제도적으로 농촌임금보다 높은 것은 노동조합, 최저임금제도, 외국기업의 시장임금수준보다 높게 지불하는 관행등의 요인이 있다.(Tolley : 1987)

(5-3)  $W_r/W_u = L_u/N_u$ 이 된다.<sup>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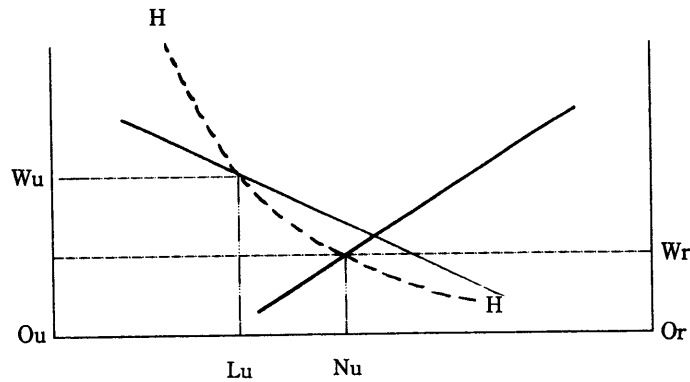
(5-3)식의 의미는 도시와 농촌사이의 임금격차가 심해질수록 도시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고 도시균형 실업율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이주자는 농촌과 도시지역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노동기회를 고려하여 이주에 의한 그들의 기대소득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도시의 기대소득이 농촌에서의 기대소득보다 높으면 노동력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록 도시에서 실업이 되더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 경제행위 결과가 된다.

이 Harris & Todaro모형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균형조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sup>9)</sup> <그림 5-1>에서  $O_u$ 에서 오른쪽으로 도시지역 인구를,  $O_r$ 의 왼쪽으로 농촌의 인구를 나타낸다. 도시의 임금은 제도적으로  $W_u$ 로 고정되어 있다. Harris-Todaro모형의 균형조건은 앞의 (5-3)식인데 이것을 변형하면  $W_u L_u = W_r N_u = C$ 가 된다. 이 조건은 원점  $O_u$ 를 기준으로 할 때 두점 ( $W_u, L_u$ ), ( $W_r, N_u$ )가 모두 방정식  $WL=C$ 로 결정되는 쌍곡선 HH위에 있게 된다. 즉 균형상태는 이 쌍곡선과 농촌지역의 한계생산물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되면 도시지역에 실질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O_u L_u$ 이고  $L_u N_u$ 만큼은 도시지역의 실업상태로 남게 된다.<sup>10)</sup>

또한 Todaro는 모든 노동이 동질적임을 가정하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력이동은 2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주노동자는 먼저 도시전통부문(urban traditional sector)으로 이주한 다음 다시 도시근대부문(urban modern sector)으로 이주해 간다. 농촌에서 도시전통부문으로 이주하는 것은 도시근대부문에의 취업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여부는 농촌과 도시간의 기대소득의

- 8) (5-3)식은 농촌-도시임금비율이 도시지역의 고용비율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G. Fields(1975)는 이 등식은 현실의 실업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도시임금은 농촌 임금의 2배-8배인데 (5-3)식에 의하면 도시의 고용율은 12.5% - 50%(실업률은 87.5% - 50%)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개도국중에서 최고의 실업률은 20% 정도를 상회할 정도이다. 그래서 상대농촌-도시구직파라메트(도시거주자가 도시에서 반드시 고용된다고 할 때 농촌거주자가 도시에서 고용될 확률)를 이용하여 Harris-Todaro모형이 갖는 이와 같은 비현실성을 수정하였다.(pp168-169)
- 9) 이것은 Corden & Findlay(1975)에 의해 시도되었고 Basu(1980)는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Harris & Todaro가 제안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 10) 이제까지의 모형은 노동은 농촌 및 도시 양부문에서 이동하였으나 자본은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 경우에 주어진 전체노동량중에서 도시부문과 농촌부문에 어떻게 배분되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자본도 양부문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여 Harris & Todaro모형을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는 Corden & Findlay(1975)에 의해 시도되었다. 자본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면 먼저 도시공업부문이 제도적으로 임금이 높기 때문에 공업부문의 노동수요가 감소하고 자본-노동비율이 높아져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떨어지게 되므로 자본은 농업부문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은 자본-노동비율이 높아져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게 되고 임금이 상승한다. 그러면 도시의 노동력이 농촌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경우 균형상태를 Harris-Todaro모형과 비교하면 실업수는 감소하고 공업부문은 생산량감소, 농업부문은 생산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1〉 Harris-Todaro 기대임금모형

격차에 의존하는데 이것은 실제소득의 격차와 도시에서 직장을 구할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소득격차가 클수록 도시지역에서 직업을 구할 확률이 높을수록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수는 증가한다. 만약 고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실업상태로 있거나 도시전통부문에 임시로 고용되어 도시근대부문에 고용되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도시실업을 구제하기 위해 고용 한단위를 창출하면 농촌지역에서는 한단위 이상이 도시로 이주해가므로 오히려 실업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Harris & Todaro 모형이 갖는 정책적 의미는 농촌지역에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소득격차를 줄이고 도시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상과 같은 Harris-Todaro모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네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첫째, 노동력 이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둘째, 도시임금은 제도적으로 한계생산력보다 높게 책정되어 실업이 발생한다.
  - 셋째, 노동력 이동의 결정은 기대임금의 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넷째, 노동력 이동은 불균형상태에서 이루어진다.

## 6. Harris & Todaro 모형에 대한 비판 및 수정

앞에서 살펴본 Harris-Todaro모형은 이제까지 개도국의 농촌-도시간 인구이동을 설명하는 모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여러 개도국의 농촌-도시간 노동력 이동 현상을 분석하는데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지역간 노동력이동을 분석하는데

이용되어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 모형은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sup>11)</sup>

이렇게 Harris-Todaro모형은 여러 국가들의 지역간 노동력이동현상을 분석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한편 이론면에서나 현실적용면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비판들을 기초로 하여 Harris-Todaro모형은 재구성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였으며 다른 방법으로 지역간 노동력이동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제까지의 Harris-Todaro모형에 대한 비판점을 종합해보면 첫째, 농촌노동력의 완전고용을 가정한점, 둘째 도시공식부문의 임금이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한점, 셋째, 도시 공식부문 노동력의 완전고용을 가정한점, 네째 노동력이 모두 동질적이고 노동력이동이 농촌으로부터 도시 비공식부문-공식부문 2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한 점, 다섯째 농촌인구가 과소해졌는데도 인구유출이 계속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등이다. 앞으로 이들 각 비판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이것을 기초로 Harris-Todaro모형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농촌노동력의 완전고용을 가정한 점에 대한 비판이다. Harris-Todaro모형의 주요한 가정 중의 하나는 도시에서의 임금수준이 농촌보다 높아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주하게 되고 그 결과 도시에서는 다수의 실업자가 존재하게 되나 농촌에서는 완전고용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을 보면 Lewis가 지적한 것처럼 농촌에서 완전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실업이 존재하고 있고 또 취업이 된 경우에도 잠재실업형태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한국의 60년대, 70년대를 생각하거나 현재의 인도나 멕시코같은 나라를 보게 되면 농촌에서 잠재실업이 폭넓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Harris-Todaro모형을 제3세계국가에 그대로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 (1) Stiglitz 有效賃金模型(efficiency wage model)

이 모형은 도시공식부문 임금결정에 대한 비판이다. Harris-Todaro모형에서는 도시의 임금수준이 제도적인 요인 때문에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임금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예컨대 도시지역의 생계비가 농촌의 생계비보다 높아 농촌지역의 한계생산성보다 높은 수준에서 도시지역의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도시지역에서는 최저임금수준에서 고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Stiglitz(1982)는 도시-농촌간 임금격차와 도시지역의 실업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의 임금수준은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생산성과 양의 상관관계가

11) Suits(1985) 참조

있기 때문에 내생변수로 취급해서 설명해야 한다<sup>12)</sup>는 효율임금가설을 주장하였다. 전통적인 시장이론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 초과공급이 발생하면 임금이 하락하고 그 결과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여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노동생산성이 임금수준에 비례한다면 기업이 단위임금을 증가시킬 때 노동생산성이 더 올라간다면 기업은 임금인상의 유인을 가지며 반대로 단위임금이 하락할 때 노동생산성이 더 줄어든다면 기업은 노동시장이 초과공급상태가 되어 임금이 하락하여도 더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노동생산성변화와 임금변화가 정확히 일치되는 수준의 임금을 효율임금이라하고 이 때 효율노동당 최소비용이 든다.

효율임금하에서는 노동의 초과공급이 존재하여 보다 낮은 임금수준에서 노동자의 추가고용이 가능하더라도 임금을 인하시키거나 추가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w의 임금수준이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거나 또는 수요를 초과하더라도 균형임금이 된다. Stiglitz의 효율임금모형은 도시에서 실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도시의 임금이 농촌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가를 설명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 (2) Harris-Sabot 求職模型(job-search model)

이 모형은 도시공식부문 노동력의 완전고용에 대한 비판이다. Harris-Todaro모형에서는 도시비공식부문에서 실업 및 불완전고용층이 존재하고 도시공식부문에서 완전고용이 성립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개도국의 경우를 보면 도시공식부문에 광범위한 실업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Harris-Sabot (1982)는 求職模型을 제시하고 있다. Harris-Sabot 의하면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노동력이동이 도시의 실업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역은 성립하지만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력이동이 도시실업을 형성하는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력이동이 없는 경우에도 도시에서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고전파모형에 의하면 단일임금이 존재하고 그 임금하에서 구직자들은 직업을 구하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이것은 정보가 완전하다

12) Stiglitz는 1987년 논문에서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 증가를 유발한다는 가정의 현실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5다섯가지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 (1) nutrition model : 임금수준이 생존수준에 가까이에 있으면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생산성이 낮다. 그러므로 임금상승은 인간의 건강을 회복시켜 생산성을 제고시킨다.
- (2) morale effect : 임금상승은 노동의욕을 고취시켜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 (3) labor turnover model : 임금상승은 이직을 감소시켜 기업의 실무 및 훈련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다.
- (4) shirking effect : 다른 기업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을 때 해고당하면 그 기회비용이 크므로 노동의욕이 제고된다.
- (5) selection model : 직무특정기술(Job-specific skills)과 선발비용이 존재하면 고임금을 주는 기업에 지원자가 몰리고 거기서 능력있는 노동자를 선발한다.

는 전제하에서 성립된다는 것이다. 좀더 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정보가 불완전하는 경우 구직자들은 일정한 임금수준하에서 그에게 주어진 고용의 기회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 제의를 거부하고 구직활동을 계속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모형에서 구직자는 먼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최저임금(critical minimum wage)을 결정해야 한다. 이 임금수준을  $w$ 라 하면 구직자에게 제의되는 임금수준이  $w$ 보다 높으면 받아들이고  $w$ 보다 낮으면 거부하게 된다. 구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임금수준  $w$ 는 구직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과 그때 소요되는 구직비용의 차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Harris-Sabot는 적정임금수준과 그와 관련해서 適定求職期間(optimum job search period)은 구직자에게 제의되는 임금수준의 확률분포, 효용함수, 시간선호율 그리고 추가적인 구직에 소요되는 비용의 함수라고 하고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구직비용이 낮을수록, 위험기피의 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할인율이 낮을수록  $w$ 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구직기간은 길어지며, 고용되었을 때 임금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이 경우 구직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그 사회의 실제적인 임금보다 높다면 이 구직자는 실업상태에 있게 된다. 반대로 구직자 자신의 최저임금이 그 사회의 실제적인 임금보다 낮다면 이 사람은 구직에 지나치게 작은 노력을 하여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들일게 된다. 구직을 계속함에 따라 구직자의 주관적인 최저임금과 그 사회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비슷해질 것이다.

구직모형에 의하면 도시노동시장에서의 실업은 임금제의(wage offer)의 확률분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가운데 구직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이 공개실업(open unemployment)은 농촌보다 도시노동시장에 보다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도시는 농촌보다 구직기회가 다양하고 임금제의의 分散度가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은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에 비해 다양하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제의의 분산도가 클 것이다. 따라서 교육받은 사람은 구직이 길수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보다 높은 수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따라서 실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반면에 교육을 적게 받은 사람은 공식 부문에 취업하기 힘들 때는 비공식부문의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낮게 된다. 즉 도시공식부문의 노동력은 완전고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직과정에서 다수의 실업이 존재하고 있다.

### (3) Cole-Sanders 都市生存部門模型(urban-subsistence sector model)

이 모형은 2단계 노동이동에 대한 비판이다. Harris-Todaro모형에 의하면 농촌노동력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도시근대부문에의 취업을 기대하기 때문이고 도시전통부문에 취

업하는 것은 도시근대부문에의 취업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설명은 도시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노동력이 동질적이라고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노동력은 그 부양가족수, 노동력의 질(경력, 학력, 연령), 가용자원량 등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도시근대부문에 취업하기 어렵지만 이들도 많이 이주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도시근대부문에 취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구적으로 도시전통부문에 취업하기 위해 이주를 한다.<sup>13)</sup> Harris-Todaro 모형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Cole-Sanders(1985)는 Harris-Todaro모형이 도시전통부문에서 도시근대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만을 설정하였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지역간 노동력이동을 이중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력이동을 농촌에서 도시근대부문으로의 이동은 인적자본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농촌에서 도시전통부문으로의 이동은 인적자본이 없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즉 농촌에서 도시전통부문으로는 진입장벽이 없지만 도시근대부문에서는 일정한 교육수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은 영구적으로 도시전통부문에 고용되기 위해 도시로 이동한다는 것이다.<sup>14)</sup> Cole-Sanders 모형에 의하면 Harris-Todaro 모형에서와 같이 농촌에서 도시근대부문으로 이동할 때는 기대임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도시전통부문으로 이동은 도시전통부문이 도시근대부문에 제공하는 서비스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이 때 농촌에서의 노동력은 일정임금수준에서 완전탄력적으로 공급되는데 이 때의 임금수준은 (농업부문생산량/농업부문노동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농촌의 노동력과 도시의 노동력은 상호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도시전통부문의 노동력의 한계생산력은 0이거나 0에 가깝다. 도시전통부문의 임금수준은 도시전통부문생산량/도시전통부문노동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농촌의 임금수

13) 이런 현상을 윤진호(1986)는 한국노동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도시근대부문에 해당하는 고용주와 상용근로자는 평균교육년수가 12년(1고졸)인 반면 도시전통부문의 조동력에 해당하는 무급가족종사자, 임시노동자는 9년(중졸) 그리고 일용노동자는 8년(중퇴)정도에 해당한다. 이들 도시전통부문의 노동력은 건설업생산직, 도소매업, 판매직에서 고용되어 있는데 도시근대부문의 제조업생산직이나 제조업사무직 보다 근속년수가 높다. 이것은 도시전통부문의 노동력이 쉽게 도시근대부문으로 이동하지 않으며 그 부문내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14) Fields(1975)는 이와는 약간 다르게 교육문제를 포함하여 노동력이동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자와 교육수준이 낮은자를 구분해서 균형고용률 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전체노동력을 도시노동력과 농촌노동력으로 구분하고 도시노동력을 교육받은 자와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구분하여 전체노동력을 3그룹으로 나누어 모형을 설정하였다. Fields에 의하면 기업가는 교육받은 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교육받은 자는 즉시 직업을 구해 실업자가 없고 교육을 받지 않은 자중 일부는 나머지의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업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형을 설정하면 이 모형이 균형에 도달했을 때의 전체도시의 고용률은 원래의 Harris & Todaro모형의 결과보다 높게 된다.

준과 도시전통부문의 임금수준이 같아지면 양자는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 Harris-Todaro는 지역간 노동력이동은 양부문의 기대소득의 격차에 의존하기 때문에 도시의 지나친 현대화는 농촌의 인구를 유발시켜 오히려 도시의 실업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Cole-Sanders에 의하면 도시근대부문의 증가는 도시전통부문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이들의 임금수준을 올리고 그 결과 농촌으로부터의 노동력이동을 유발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농촌의 인구가 감소하여 농촌의 임금수준을 인상시키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력이동은 개인적으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 (4) Mazumda의 分斷勞動市場模型(segmented labor market model)

Mazumda(1976, 1987, 1989)는 Cole-Sanders와 마찬가지로 Harris-Todaro모형에서 농촌이주자가 도시근대부문에 영구적으로 직장을 얻기 위해 도시전통부문에 일시적으로 고용된다는 2단계 고용형태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개도국의 분단노동시장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농촌이주자는 도시전통부문에는 고용이 쉽게 이루어지지만 도시근대부문에는 고용이 어렵고 제한적이다. 이와 같이 도시전통부문과 도시근대부문이 분단되는 이유를 Mazumda는 두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내부노동시장의 발달이다. 그 이유로는 기업가는 고용을 결정할 때 도시비공식 부문에서 일정한 기간을 보낸 사람보다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한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직업경력이 낮은 젊은 층을 고용하여 이들을 훈련하여 보다 상위직급에 공백이 생길 경우 이들로 충원했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둘째, 도시근대부문의 기업이 고용기준을 교육수준에 두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은 노동시장에서 비경쟁집단(noncompetitive group)을 형성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의 승진의 기회를 감소시킨다.

또한 Mazumda(1989)는 도시근대부문과 도시전통부문사이의 임금격차는 Harris-Todaro모형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보다는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첫째, 가족을 동반하는 영구이주에 따른 노동 공급가격은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고용형태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그 이유는 노동의 안정성과 효율성사이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기업이 영구이주노동력을 유인하기 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둘째, Stiglitz효율임금가설에서 처럼 고임금은 고생산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기업고유의 노동력(firm-specific labor force)을 갖는 기업은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할 유인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도시근대부문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이 높은 임금을 분배받고 도시전

통부문에는 다수의 사람이 더 낮은 임금으로 반영구적으로 고용되는 분단노동시장이 고착된다. 그래서 Mazumda는 Harris-Todaro처럼 개도국의 농촌-도시의 과도한 노동력 이동을 자원의 비효율적 측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주자사이의 소득분배의 불공평문제가 더 현실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 (5) Lee Bun-Sung 模型

Harris-Todaro모형은 개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간 노동력이동에 따른 도시실업 문제에 중점을 둔것에 대해 Lee(1991)는 한국과 같은 개도국은 최근 15년동안 거의 완전고용상태에 도달되어 왔기 때문에 실업문제(도시나 농촌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촌인구가 충분히 감소했는데도 지속적으로 노동력이동현상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노동시장의 분단성으로 인하여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이점이 더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노동시장 분단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도시근대부분의 대기업은 상품시장에서 독과점지위를 누리고 있고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에서 노동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 이런 대기업으로의 고용기회를 잃은 높은 교육수준의 이주자는 도시근대부분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중소기업에 고용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자신의 인적자본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정책혜택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도시전통부문에는 고령층이나 교육수준이 낮은 이주자가 고용되는데 도시근대부분보다는 임금이 낮지만 중요한 것은 농촌부문보다는 임금이 높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부문은 도시근대부분에 필요한 개인서비스형태의 도시비교역재를 생산하는데 도시근대부분의 노동자수와 소득이 증가하여 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Lee(1991)는 이와 같은 분단시장구조하에서 국제무역이론의 Balassa효과<sup>15)</sup>를 이용하여 지역간 노동력이동을 설명하고 있다. 재화를 교역재 비교역재로 구분할 때 경제를 도시부분과 농촌부분으로 나누는 경우 재화를 다시 도시교역재 도시비교역재 농촌교역재 농촌비교역재로 나누어질 수 있다. 도시의 교역재부문의 생산성은 농촌의 교역재부문보다 생산성이 높다. 이것은 농업생산은 자연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농업기술도 지역성이 있어 그 전파가 어려운데 반하여 공업생산은 기술이전이 쉽고 자연환경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생산을 인위적으로 조종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산품

15) 교역재에대한 비교역재의 상대가격비율이 구조적으로 선진국에서 개도국보다 높다는 효과이다.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자원의 비중이 교역재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역재에 대한 공급은 상대적으로 적고 수요는 크기 때문이다.

수요는 가격과 소득에 대해 탄력적인데 반해 농산품의 수요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소득증가에 따라 공산품에 비해 농산품의 수요는 보다 작게 증가한다. 따라서 농산품에 비해 공산품의 생산성증가가 빠르기 때문에 도시교역재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농촌 교역재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도시비교역재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농촌비교역재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보다 생산성 증가가 크지 않더라도 임금수준은 보다 빠르게 증가한다. 왜냐하면 도시비교역재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도시교역재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고 계속 도시비교역재산업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교역재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비슷하게 인상된 보수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도시비교역재부문의 생산성이 농촌비교역재부문의 생산성보다 빨리 증가하지 않더라도 또는 양부문의 생산성이 비슷하게 증가하더라도 도시비교역재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농촌비교역재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보다 높은 보수를 받게 된다. 이것은 도시근대부문의 생산성증가가 도시전통부문의 임금상승효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도시의 노동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면 동질적인 노동력은 근대부문과 전통부문사이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농업생산성의 낮은 증가가 농촌비교역재부문의 낮은 보수를 가져오게 된다. 농촌교역재부문의 보수가 도시교역재부문의 보수만큼 빨리 증가하지 않는다면 농촌비교역재부문의 보수가 도시비교역재부문의 보수보다 낮게 되고 이 경우 농촌개발 등이 이루어지더라도 농촌비교역재부문의 노동자들은 도시비교역재부문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농촌비교역재부문가격이 상승하여 농촌교역재부문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이제 농촌의 교역재부문에서도 노동력이동이 발생하게 된다.

Lee는 또 다른 측면에서 지역간 노동력이동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Krugman (1979)의 독점적경쟁시장(monopolistic competitive market)과 무역이론을 적용하여 교육을 포함한 농촌-도시의 비교역재가 지역간 노동력이동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 비교역재시장은 독점적경쟁시장구조를 가지고 있고 비교역재 특성상 지역간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때 농촌-도시노동력이동이 발생하면 농촌지역의 수요는 감소하고 도시지역의 수요는 증가하여 도시지역은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고 더 낮은 가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즉 교육, 문화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하여 '도시의 불(city light)' 역할을 하며 더욱 노동력이동을 촉진한다. 이런 이유때문에 농촌지역의 소득이 증가하여도 노동력은 도시로 이동하고 지역간 노동력이동을 억제하려는 어떠한 농촌개발계획도 실패했으며 서울의 집중화현상은 가속화되어왔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력이동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 7. 既存研究結果의 評價

지역간 노동력이동을 신고전파 틀안에서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두가지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첫째, 모든 부문에 투입되는 노동력은 동질적이다.

둘째, 각 부문의 임금은 노동력의 한계생산력에 의해서 결정되며 신축적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도시지역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농촌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임금이 높게 결정되고 이런 임금격차에 의해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도시지역의 노동자는 노동력 유입으로 한계생산성이 떨어지고 농촌지역은 노동력 유출로 한계생산성이 올라가 결국 한계생산성이 동일해지는 수준에서 양부문의 임금은 동일하게 결정되고 노동력의 이동은 정지된다.

그러나 개도국을 중심으로 여러나라에서 신고전파이론으로 설명할 수없는 다음과 같은 특징(stylized facts)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 (1)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한계생산성이 높는데 노동력이동은 일어나지 않고 농촌지역에 잠재실업이 존재한다.
- (2) 노동력이동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도시-농촌지역의 소득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 (3) 도시에 실업이 존재하는데도 농촌-도시간 노동력이동이 지속되고 있다.
- (4) 산업별 학력별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 (5) 도시지역에서 전문직노동력과 단순생산직노동력 사이에 분단된 시장이 존재한다.
- (6) 농촌지역에서 노동력이 부족한데 도시지역에서는 젊은 고학력자의 실업이 존재한다.

이런 현상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논의된 모형에 의해서 충분히 제시되었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이 동질적이지 못하고 이질적이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이 분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의 분단원인으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지적되고 있지만 교육에 의한 인적자본의 유무(Cole and Sanders, G.Fields), 비경쟁집단의 속성으로서 교육(Mazumda), 문화적 성격이 강한 도시비교역재(Lee)로 파악하고 있을 뿐, 교육의 인적자본형성과과정과 그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단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다른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인적자본을 생산하고 이 인적자본은 노동력에 체화되어 생산요소로서 최종재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이다. 그러므로 교육이 어떻게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그것이 노동력에 체화되어 최종재생산에서 어떤 생산요소로서 역할을 하는가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노동시장을 분단시키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각 개인이 경제적 동기에 의해 인적자본이 필요한 시장과 필요치 않는 각 분단된 시장에 공급되는 노동량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지역간 노동력이동현상도 분명해질 것이다.

